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

전주문화재단, 8월 18일까지 공모전... 총상금 1600만원
전체곡 30% 이상 AI 작곡 프로그램 사용 국악풍 노래곡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8월 18일 까지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전체 곡의 30% 이상 AI 작곡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AI 작곡 프로그램 어떤 것이든 사용가능하며, 음악의 장르나 형식은 제한없지만 반드시 가사가 포함될 2분 이상 3분 이하의 국악풍 노래곡이어야 한다.

특히, AI 활용 작곡 공모전이기에 때문에 'AI 활용 작업기'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어떤 AI 작곡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어떠한 입력 값을 통해 어떠한 결과값을 얻었는지, 얻은 결과물을 노래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등 자유 양식으로 작업기를 작성하면 된다.

심사는 총 3차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1차와 2차는 대중음악 전문가, 국악 전문가 등 5

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평가가 진행되며, 3차에서는 시민 대상 평가단을 모집해 평가한다. 최종적으로 전주시장상 1팀,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상 3팀을 선정한다. 전주시장상 1팀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 뿐만 아니라 오는 10월 개최되는 '미래문화도시 페스티벌' 공연도 예정돼 있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이번 공모전이 미래문화도시 전주를 만드는 미중물 역할을 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모결과는 오는 9월 9일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jkf.or.kr>)나 문화도시TF팀(070-7711-3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 포스터

'우주의 광명 선정화 빛꽃수행'

명사초청 상생 힐링 선포럼 전북 강연회 13일 개최

전주 데메이호텔에서 우주의 빛꽃 '선정화'의 비밀을 밝히는 아주 특별한 명사수행 이벤트가 열린다.

STB상생방송에서 주최하고 전북지역 상생월드 힐링 선포럼(회장 이용진)에서 주관하는 2024 상생월드 힐링 선포럼 '우주의 광명 선정화 빛꽃수행'이 오는 13일 오후 3시 전주 데메이호텔 메이벨스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 관계자는 각 분야의 수행 세계에서 오랫동안 화두였던 우주와 인간의 본질이 한 송이 꽃이었다는 것을 전한다. 또 석가모니 부처가 깨우친 공극의 깨달음의 세계와 동학에서 전하는 미륵으로 오신 상제(전주)님의 시천주 사상 모두가 이 꽃으로 통하여 안경전 종도사가 50년간에 걸친 수행과 현장 답사를 통해 처음으로 밝혀진 선정화의 비밀이 드디어 공개된다고 하며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했다.

K-culture 시대 인류의 궁극이 K팝, K드라마, 한국의 의식주 문화를 넘어 한국의 역사, 한국의 정신 K-spirit으로 가고 있다. 그 중에서 영성과 도통세계에서 광명의 '빛꽃'으로 불리는 '선정화'의 비밀을 밝혀준다. 이날은 안경전 종도사가 직접 지도하는 '선정화 수행전수'가 예정되어 있다.

지금 지구촌 현대문명이 최첨단이라는 화

려한 물질문명을 구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환경파괴, 기후 위기, 감염병, 전쟁, 경제위기 등 온갖 갈등과 대립, 억압과 착취, 반목과 투쟁 등 어둡고 절망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인류는 오랜 시간 상극(相克)으로 접착된 역사 속에서 깊은 어둠에 갇혀버렸고, 상극의 탓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다. 화려한 문명과 어두운 인간의 내면은 철저히 단절되어 인류는 내적 상처와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지만, 누구도 상처를 치유해 주고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세계는 여름 우주가 끝나고 가을 우주로 들어가는 하추교차기(夏秋交叉期), 즉 가을개벽, 후천개벽을 앞둔 우주적 전환기이다.

태고 시대의 원형문화이며, 한민족 상고역사인 환국 배달 단군조선의 빛나는 정신문화였던 홍익인간의 광명문화는 이제 현대문명의 어두운 장막에 가려 그 존재와 가치를 잃어버렸다. 하지만,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과 함께하는 후천개벽 맞이 선정화 빛꽃 신심수행'을 통해 잃어버린 태고 시대의 뿌리 원형 수행문화를 복원하고,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아픔을 치유하는 우주광명 빛꽃 선정화문화가 열리게 된다.

/김재훈 기자

조선시대 마지막 어진화사 '석지 채용신' 작품 기탁받아

이기동씨, 정읍시에 기탁... 신태인 육리마을 '채석강도화소' 서 그린 이세현 초상

조선시대 마지막 어진화사 석지 채용신(1850~1941, 이하 채용신)이 그린 초상화 한 점이 정읍시에 전해졌다.

시는 지난 8월 시민 이기동 씨로부터 채용신이 그린 초상화 한 점을 기탁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기탁 유물은 채용신이 1924년에 그린 이세현의 초상이다. 채용신은 태조 어진을 비롯해 조선의 역대 왕의 초상을 그린 어진화사로, 1920년대 신태인 육리마을에 '채석강도화소'라는 공방을 세워 초상화가로 명성을 떨친 인물이다.

초상화의 주인공은 기탁자(이기동)의 집안에 내려오는 족보와 초상에 남겨진 관서를 통해 기탁자의 증조부임을 알 수 있다. 초상은 채용신이 '채석강도화소'에서 이세현씨 가족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초상화는 감실형 영정함에 초상이 걸려 있는 형식이다. 감실형 영정함은 초상화와 같이 전해지는 예는 국립민속박물관(김제덕 초상), 개인 소장(홍순화 초상) 등으로 사례가 많지 않아 채용신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초상의 주인공인 이세현은 의자에 호피(표피)를 깔고 정자관을 쓰고 심의를 입고 앉은 모습이다. 오른손에는 부채를, 왼손에는 안경을 손에 쥐고 있고 신발은 흰색 혜(鞋)를 신었다.

눈에는 흰색 하이라이트를 구사해 사진 찍을



때 빛이 반사되는 표현을 했는데, 이는 채용신 초상의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눈동자 양옆으로 흰색 라인을 그려 넣어 눈동자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오른쪽 눈꺼풀 위에 점도 그려 넣은 것을 보면, 인물의 사실적인 묘사에 중점을 두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눈 아래쪽, 콧날 양쪽에 반복되는 붓질로 어두운 음영 표현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초상의 오른쪽 아래에는 1924년 채용신이 그렸다는 '甲子仲春上漸從二品蔡石八十翁寫(갑자중춘상한종이품채석지팔십공사)'의 관서가 남아있다.

이세현 초상은 제작년도가 적혀 있는 관서가 남아 있고, 감실형 영정함과 같이 전해지는 중요한 사례인 점과 함께 1920년대 채용신 전성기 화풍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미술사적 가치가 큰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화수 시장은 "기탁 받은 채용신 작품은 기탁자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전시·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하겠다"며 "또한 정읍과 채용신과 역사의 연결고리를 정리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부안예술회관, 뮤지컬 '세프' 20일 공연

부안군은 오는 20일 부안예술회관에서 뮤지컬 '세프'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뮤지컬 '세프'는 한국의 대표 음식 비빔밥에서 '믹스 앤 하모니'(Mix&Harmony)라는 컨셉을 가져와 그 소재로 전 세계의 대표 음식을 활용한 난버벌 퍼포먼스 공연이다. 어린이에서 청소년,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음식문화에 대한 특색을 배급자는 코미디 상황극으로 설정 100%라이트로 관객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심장박동을 담은 비트박스과 조화로운 하모니의 아가펠라, 환호성을 자아내는 비보잉과 마살아츠에 이르기까지 전문 배우들의 다채로운 무대가 공연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땔 수 없게 만든다.

공연은 오후 3시, 오후 7시 30분 총 2회에 걸쳐 개최되며, 티켓 예매는 12일 오전 9시부터 티켓링크에서 가능하다. 이번 공연의 관람료는 1만원이며, 부안군민 90% 할인된 1,000원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예매 티켓 수령은 공연 당일 1시간 전부터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제32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림전 전시

초등학생들이 그려낸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마련됐다.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7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상설전시관 로비에서 '제32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림전'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그림전은 지난 6월 24일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진 '제32회 어린이 국가유산 그리기 대회' 수상 작품들을 선보는 자리다.

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전주 한울초등학교 4학년 정시은 학생의 '푸른 용을 품은 백자'가 선정됐으며, 이 밖에도 우수상 6명, 특선 18명, 입선 55명 등 모두 8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번 그림전에서는 최우수상부터 특선까지 총 25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제13회 빛고을 핸드메이드 페어' 참가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12~14일 서울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3회 빛고을 핸드메이드 페어'에 참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서 주최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빛고을 핸드메이드 페어는 우수 수공예품의 판로개척과 지역 공예문화 산업육성을 위해 2012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전국 200여 개 공예 공방, 수공예 진흥기관, 협동조합, 대학 등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특히 전당의 이번 페어 참여는 지난 3월 광주디자인진흥원과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내 곁에 공예' 주제의 특별관을 운영, 지역 수공예품 80여 종을 전시·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전주공예품전시관 입점 상품인 △꽃꽂이 갈피와 전주드림캐처 △매듭북마커 △오얏꽃 각인볼펜 △색동다용도 텀블러가방 △위빙백 △파닥팔찌 등을 전시·판매하고, 천년전주 명품 온(On)브랜드 제품을 통해 지역 공예 문화도 소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